

손님 하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손님의 자리를
비워드립니다



2021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Best Private Bank in Korea)



2021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
(Most Innovative Private Bank in the World)



Maurice Ravel
Le Tombeau de Couperin
라벨
쿠프랭의 무덤

Wolfgang Amadeus Mozart
Piano Concerto No. 21, K. 467, C Major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1번 다장조, 곡번호 467

Dmitri Shostakovich
Piano Concerto No. 1, op. 35, c minor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다단조, 작품번호 35

Alberto Ginastera
Variaciones Concertantes, op. 23
히나스테라
교향적 변주곡, 작품번호 23

쇼스타코비치 서거
50주년,

라벨 탄생
150주년

Remembrance
Ravel & Shostakovich

05. 15 Thu

7:30 PM

LOTTE
CONCERT HALL

심포니 S.O.N.G 이사진

BOARD OF DIRECTORS

이사장

문형주

부이사장

안정근

감사

김일규

이사

문형주

안정근

김일규

송백규

이경혜

이주현

김희련

낮은 소리

LOW VOICES

권상준

김태구

백수인

오승훈

윤정웅

장명식

2024~2025시즌 연 회원 후원자 명단

마에스트로 Circle

하나은행

마스터즈 Circle

(주)풍산

말리 Circle

(유)세봉

(주)에프에스티

(주)티에스이

브람스 Circle

(주)디에스케이

(주)GFS

(주)골프존

브루크너 Circle

김석수

신승일

슈베르트 Circle

김창석

이경혜

윤정웅

(주)면사랑

(주)세아제강

영앤진세무법인

베토벤 Circle

엔피코리아

최영애

장원기

송백규

쇼팽 Circle

문형주

안정근

(주)다진

(주)KNW

박선주

모차르트 Circle

(주)코스모엠

김기태

서석호

신영만

전홍구

한수향

한정숙

하이든 Circle

고운영

김종혁

신갑순

이근혁

계양 수치과

이숙희

김성렬

백방미

김은주

이용돈

권영성

이미영

최상욱

김종훈

김영기

한문성

김소정

박진형

유소정

박지윤

장윤정



고맙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 심포니 S.O.N.G

2014년 8월, 지휘자 함신익은 후원자, 음악가들과 더불어 〈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의 첫 자리를 떠 〈함신익과 심포니 S.O.N.G〉을 창단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활발하게 연주활동을 해온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우리나라 최고의 민간 주도 오케스트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지휘자 함신익은 KBS교향악단, 대전시향 및 미국 유수의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거쳐 함신익과 심포니 송 창단 이후에도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다양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며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심포니 송은 뛰어난 연주력, 창의적인 프로그램, 광범위한 사회공헌 연주 등 차세대 오케스트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발전하며 각계각층의 지지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10년도 우리나라 오케스트라의 발전을 꿈꾸는 함신익과 심포니 송을 응원하는 후원자들이 함께 발맞추어 이뤄갈 것입니다.

MISSION

- 대한민국 오케스트라의 통상적인 운영 체계를 뛰어넘어,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후원자인 동시에 주인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 진정한 예술정신을 발휘하여 클래식 음악이 주는 고귀한 메시지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한다.
- 음악을 통해 따뜻한 기적을 이루고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나눔의 오케스트라로 자리하여 지역사회를 활기치게 한다.

VISION

- 뛰어난 기량을 가진 음악가들이 입단하여 프로연주자로서 최대 5년을 활동하면서 다음 세대에 필요한 예술가로 성장하게 한다.
- 국내 최고의 홀에서 진행되는 고품격 '마스터즈 시리즈'를 통한 최상의 연주로 관객의 만족을 추구한다.
- 유의미한 해외 연주를 통해 국제적 트렌드를 리딩하는 선도적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VALUE

- 오케스트라의 효율적 운영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 한국 메세나 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 노루홀딩스와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였다.
- 서울시의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Remembrance Ravel & Shostakovich

쇼스타코비치 서거 50주년,
라벨 탄생 150주년

Maurice
Ravel
1875~1937



Le Tombeau de Couperin

라벨 - 쿠프랭의 무덤

- I. Prélude 전주곡
- II. Forlane 포를랑
- III. Menuet 미뉴엣
- IV. Rigaudon 리고동

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7



Piano Concerto No. 21 in C Major, K. 467

모차르트 - 피아노 협주곡 제21번 다장조, 궤헬번호 467

- I. Allegro maestoso 활기찬 빠르기로 장엄하게
 - II. Andante 편안한 걸음걸이로
 - III. Allegro vivace assai 매우 활기차고 빠르게
- Piano - 유영욱

Intermission

Dmitri
Shostakovich
1906~1975



Piano Concerto No.1 in c minor, Op. 35

쇼스타코비치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다단조, 작품번호 35

- I. Allegro moderato 조금 빠르게
 - II. Lento 느리게
 - III. Moderato 보통 빠르기로
 - IV. Allegro con brio 씩씩하고 빠르게
- Piano - 유영욱

Alberto
Ginastera
1916~1983



Variaciones Concertantes, Op. 23

히나스테라 - 교향적 변주곡, 작품번호 23

- I. Tema per Violoncello ed Arpa 첼로와 하프를 위한 주제
- II. Interludio per Corde 현악기를 위한 간주곡
- III. Variazione giocosa per Flauto 플루트를 위한 유쾌한 변주
- IV. Variazione in modo di Scherzo per Clarinetto 클라리넷을 위한 스케르초 풍의 변주
- V. Variazione drammatica per Viola 비올라를 위한 극적인 변주
- VI. Variazione canonica per Oboe e Fagotto 오보에와 바순을 위한 카논 형식의 변주
- VII. Variazione ritmica per Tromba e Trombone 트럼펫과 트롬본을 위한 리드미컬한 변주
- VIII. Variazione in modo di Moto perpetuo per Violino 바이올린을 위한 무한 운동 형식의 변주
- IX. Variazione pastorale per Corno 호른을 위한 목가적인 변주
- X. Interludio per Fiati 관악기를 위한 간주곡
- XI. Ripresa dal Tema per Contrabasso 콘트라베이스를 위한 주제의 재현
- XII. Variazione finale in modo di Rondo per Orchestra 오케스트라를 위한 론도 형식의 마지막 변주



심포니 송의
연주자들

예술감독	함신익				
바이올린	송지원*	박진형	강은실	오하은	김채원
	김하늘	박지윤	박하람	이예원	정예린
	정예은	최서현	홍예슬	황준정	
비올라	곽다경	김용수	송수민	안예림	장윤정
	조선유				
첼로	최예지	권혜림	이혜인	정혜술	
더블베이스	고부현	김가은	김태현		
플루트	박준희	허지희			
피콜로	허지희				
오보에	김소정	김우영			

잉글리쉬 호른	김우영				
클라리넷	조종현	최윤석			
바순	김윤지	고경호			
호른	김효정	조종현			
트럼펫	이진규	이혜진			
트럼본	김성수				
팀파니	황영광				
하프	양혜영				
크리에이티브 팀	신현숙	고부현	구현정	김소정	유소정
	이건우	이수민	이창훈	최아현	최윤석

*약장 ※명단은 악장/수석/부수석 외에는 가나다순 정렬입니다.

함 신 익

M
A
S
T
R
O



함신익은 대전시향(2001~2006)과 KBS 교향악단(2010~2012)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2014년 함신익과 심포니 송을 창단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를 표방했다. 기회가 필요한 젊은 유망 연주자를 단원으로 선발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체성을 확립했다. 그가 다음 세대에 집중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에는 ‘뉴월드 심포니’라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학업을 마친 연주자들을 선발해 2년간 프로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곳에서 실력을 쌓은 뒤 원하는 곳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인데 한국에도 그런 역할을 할 오케스트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단원들이 최대 5년까지 활동할 수 있게 했고 함께하는 동안 되도록 심오한 레퍼토리를 다루고 한 곡을 연주하더라도 제대로 하도록 집중하여 연습하도록 합니다. 단원들은 자신의 희망을 위해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지요.”

지휘자 함신익의 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사춘기 시절, 인상 깊게 관찰한 선교사들의 행적이나 실향민인 부모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에서 태동되었다 해도 과언 아니다. 가난하지만 신실했던 소년 시절의 경험은 그가 성장해 가며 생성된 보석 같은 사명 의식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함신익은 한국에서의 학업과 군 복무 후, 미국 라이스대학교 이스트만 음악학교에서 지휘, 피아노, 성악, 이론 그리고 음악사를 배웠다. 그의 열정은 미국의 토양에서 발휘하게 되는데 재학시절 직접 구성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였고, 철학과 지휘 경험을 극대화하며 프로 지휘자로서 뿔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구축했다. 심지어 아스펜의 여름 음악캠프에서도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등 거침 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쏟아부었다. 30대 초반까지 함신익은 미국에서 학업에 열중하였고 이후 세계 지휘콩쿨에 입상하며 1992년부터 프로 지휘자로 데뷔했다. 미국의 그린베이 심포니, 에블린 필하모닉, 타스카루사 심포니, 밀부룩 오케스트라 등 중·소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며 ‘오케스트라 부흥사’라는 별명을 얻어가며 주목받는 지휘자로 성장했

함신익과 심포니 송이 창단 10주년을 넘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원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동안의 10년이 고군분투孤軍奮鬪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의 시간은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시간이 될 것이다. 부지런히 실력을 키워 연주와 예술정신을 갈고 닦아서 빛을 내게 된다는 의미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지휘자 함신익은 다음 세대를 위한 연주자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위해 매분 매초를 절차탁마하고 있다.



다. 37세부터는 예일대 지휘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3년간 후학양성에 몰두했다. 그가 키워낸 제자들은 유럽, 미국, 아시아의 중요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단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지도를 받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세계 메이저 오케스트라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심포니 송의 성장의 비결은 음악을 향한 열정과 진한 연습에서 거두는 실력입니다. 저는 단원들이 자신의 실력을 향상하도록 돕습니다. 단원의 실력이 제고되면 연주의 완성도는 배로 좋아집니다. 심포니 송의 마스터즈 공연에서는 모든 연주자가 열정적으로 연주하기에 모두가 특별하게 부각됩니다.”

실제로 2024년 12월 송년연주회에서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베토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연 시간 내내 기립해 연주를 하기도 했다. 심포니 송의 마스터즈 시리즈는 연주하는 곡

은 다르지만 언제나 특별함을 유지한다. 지휘자의 통찰력에 따른 연주자들의 열정이 그때 그때마다 새롭고 유니크하기 때문이다. ‘더 왕’ 프로젝트로 전국의 문화예술 소외자를 위해 연주로 공헌하는 것도 심포니 송의 자랑 중 하나다. 더 왕 프로젝트로 음향이 완벽하게 구성된 실내에서만 제 역할을 한다는 기존 오케스트라의 편견을 무너뜨리며 클래식 장벽을 낮춘 결과도 거둘 수 있었다. 함신익과 심포니 송의 다음 10년은 지금까지의 10년보다 환경은 더 어려워지겠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 마스터즈 시리즈 공연은 더욱 특별한 레퍼토리로 관객을 찾고 지역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공연도 횟수와 퀄리티 또한 제고할 것이다. 지휘자 함신익은 2025년도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예술가로서 자신의 전부를 청중에게 전달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음악이 모든 것인 함신익, 그가 심포니 송과 함께 펼칠 예술가 정신을 기대한다.



피아노 유영욱

PROFILE

- 줄리어드 예비학교 및 음대 졸업
- 맨해튼 석사 및 박사 과정 수료
- 독일 베토벤 콩쿠르 우승,
스페인 산탄데르 콩쿠르 만장일치 우승 등 유수의 국제콩쿠르 입상
- 카네기홀, 위그모어 홀, 예술의 전당, 롯데콘서트 홀 등
국내외 주요 무대에서 연주
- 프랑스, 스페인 국립 오케스트라, 서울시향, KBS 교향악단 등
국내외 주요 교향악단들과 협연
- 현) 연세대학교 피아노과 교수

Q 심포니 송의 첫 인상

A 보통 오케스트라의 첫인상은 지휘자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 심포니 송의 경우도 함신의 선생님께서 계시다보니 기본적으로 굉장히 진지하고 학구적인 리허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단원들 대부분이 젊어서 그런지 아직도 그들의 눈빛 속에 학생 때의 때묻지 않은 열정과 호기심이 그대로 빛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음악적 단합과 완성도를 중시하면서도 개개인의 다양한 색깔과 차이 또한 억압하지 않는 개방성이 심포니 송만의 특별한 매력이자 제가 받은 첫인상이었습니다. 이런 개방성은 함신의 선생님께서 솔리스트를 대하시는 방식에서도 빛났는데 제가 어떤 새롭고 낯선 표현을 시도해도 선생님께서는 귀찮아하시기는 커녕 이런 실험 정신을 늘 칭찬하시고 최선을 다해 맞춰주셨습니다. 이런 유연하고 역동적인 분위기가 심포니 송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생각하고 그래서인지 심포니 송과 함께 할 때면 저도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Q 연주자로서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걸 넘어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계시는데,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자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A 이제 교육자로서 발을 내딛은지도 벌써 16년이 넘어가는데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 보람 있으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일도 드물 것 같습니다. 서로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연구 주제를 찾아가는 여정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흥미진진한 일 같습니다. 인상 깊었던 경험을 공유하자면 예전 유학 다녀온 제자들과 나눴던 대화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제가 예전 레슨 때 가르쳐줬던 내용이 막상 처음 배웠던 당시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유학 가서 혼자 연습하다 보니 어느 순간 갑자기 기억나며 확 이해가 됐고 그로 인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나눴던 수많은 내용들 중 어떤 것이 학생에게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가르치는 직업의 어려움이자 묘미인 것 같습니다.

Q 이번 심포니 송과의 협연에 대한 기대와 준비

A 모짜르트 협주곡은 제가 인생 최초로 초등학교 때 협연했던 곡이고 쇼스타코비치 협주곡은 귀국하고 한참 후에야 익혔던 곡이라는 면에서 알파와 오메가 같은 조합입니다. 워낙 다른 스타일의 두 곡이라 기대감과 걱정이 반반인데 함신의 선생님의 심포니 송과 함께라면 알차고 참신한 연주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벌써부터 설렙니다. 모짜르트의 경우 작곡가가 직접 쓴 카덴차가 없어서 누가 쓴 카덴차를 선택할지가 늘 고민인 곡인데 초등학교 시절 협연 때는 직접 작곡한 카덴차를 연주했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도 직접 작곡한 카덴차를 연주하는데 이 버전은 얼마전에 새롭게 작곡한 버전입니다. 모짜르트, 쇼스타코비치 모두 간만에 연주하는 곡들이라 모처럼 새로운 눈으로 악보를 열심히 연구해봤습니다. 관객 여러분과 이 두 천재 작곡가들의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큰 기쁨이자 영광입니다.

Maurice Ravel

Le Tombeau de Couperin

라벨 - 쿠프랭의 무덤

1915년 초 제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애국주의자였던 프랑스 인상주의 사조 작곡가 라벨(Maurice Ravel, 1875~1937)은 39세의 나이에 불구하고 프랑스 군에 자원입대하여 육군 수송대에 트럭 운전병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전우와 그의 친구들의 죽음을 통하여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하게 되고 동시에 찬란하였던 프랑스 바로크 음악에 대한 향수에 젖게 된다. 1917년 건강을 잃어 의병제대(依病除隊) 후 전장에서 돌아온 그는 바로크 시대의 프랑스 음악과 전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의 전우들을 기리는 추모곡(追慕曲)을 쓰게 되는데 이 곡이 바로 라벨의 생의 마지막 피아노 솔로 무곡 모음곡 “쿠프랭의 무덤(Le Tombeau de Couperin)”이다. 17세기 이후 프랑스에서는 죽은 이를 기리는 작품에 일명 무덤(tombeau)이라는 호칭을 붙였는데 이 곡의 제목에서 지명하는 인물은 바로크 시대 건반 음악의 대가 프랑수아 쿠프랭(François Couperin, 1668~1733)이다.

피아노 곡 발표 후 2년 뒤인 1919년 그 중 1,3,4,5번 네 곡을 따로 모아 오케스트라 연주 모음곡으로 편곡하여 발표하게 되는데 피아노 솔로곡과는 또 다른 흥미로운 관현악 색채미로 다시 한 번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다. 이 곡은 감정의 절제된 표현과 간결하고 뚜렷한 음악적 구조 및 음향(오케스트레이션), 명확한 조성감과 주제의 시적인(비산문적, 非散文的) 표현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고전주의 음악풍의 곡이다. 곡에서 라벨은 교회선법을 이용하여 화성적 언어를 구축하였고, 바로크 시대에 유행하였던 장식음과 멜로디의 패턴을 잘 정돈하여 재현하였다.

특히 깔끔하고 산뜻한 신고전주의풍의 관현악 색채를 구현해내어 구조적 논리를 보다 명료하고 두드러지게 만들었는데 이 모든 것을 20세기 화성과 오케스트레이션과 병행하여 보다 세련되게 만들었다. 형식은 쿠프랭의 모음곡 형식 ‘오르드르(Ordre)’를 따른 것으로 소위 “오르드르 오마주(hommage)”라 불린다. 2관 편성에 피콜로, 잉글리시 호른, 하프가 겹쳐져 있는데 사실 오보에 협주곡이라 불릴 만큼 오보에의 역할이 크며 전체 음악의 색깔을 좌지우지한다. 잉글리시 호른 역시 그 비중이 커서 간혹 연주회에서 잉글리시 호른 연주자를 제 2 오보에 주자와 따로 두기도 한다. 트럼펫은 한 대인데 간헐적으로 멜로디를 담당하여 차갑고 또렷한 관현악적 색채감을 더해준다.

1곡 - 프렐류드(Prélude)

친구 자크 샤를로 중위(First Lieutenant Jacques Charlot)에게 헌정되었다. 추모음악임에도 우울하거나 슬프지 않고 빠른 16분 음표의 무궁동(無窮動, moto perpetuo: 32분 음표 또는 16분 음표와 같은 짧은 음표의 움직임이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연주되는 형식)의 리듬으로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다. 하프와 피치카토(pizzicato) 음형, 그리고 악음기(mute)를 낀 트럼펫의 효과적 인 색채감이 오보에의 고전적인 음색과 함께 아름답게 공존한다.

2곡 - 포를랑(Forlane)

화가 가브리엘 들뤼크(First Lieutenant Gabriel Deluc, a Basque painter from Saint-Jean-de-Luz)를 추모하는 곡이다. 포를랑(Forlane)은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무곡(Frioule)인데 리듬이 너무 경쾌하다고 중세 프랑스 교회에서 금지당하기도 하였다. 현대적인 화성 위에 흥겨운 리듬이 재미있는데 중반부가 베토벤 7번 1악장을 연상시키는 이유는 두 작품에서 주요 기본 리듬(motoric rhythm)이 시 운율의 Cretic(장, 단, 장)을 반복하는 데에 있다. 코다에서 등장하는 매우 높은 음역

Maurice Ravel

Le Tombeau de Couperin

Le Tombeau de Couperin is an orchestral suite of four movements by Maurice Ravel, written in 1919, of which the original is a solo piano suite composed between 1914 and 1917 in six movements, based on those of a traditional Baroque suite. Each movement is dedicated to the memory of a friend of the composer who were killed in action during World War I. The word “tombeau” is a musical term trendy in the 17th century of France, as of “a piece written as a memorial”. The Couperin in the title is François Couperin “the Great” (1668–1733). Ravel mentioned that his intention was to pay homage more generally to the sensibilities of the Baroque French keyboard suite, not necessarily to imitate or pay tribute to Couperin himself in particular. This is reflected in the piece's structure, which imitates a Baroque dance suite.

1. Prélude - dedicated to Jacques Charlot

Jacques Charlot was a godson and cousin of Claude Debussy's music publisher Jacques Durand and was a friend of Maurice Ravel. He served as a lieutenant in the French army and was killed in 1915.

2. Forlane - dedicated to Gabriel Deluc

Gabriel Deluc was a Basque painter who joined the French army at the beginning of the war as a nurse. In 1915, he joined the combat troops and was promoted to the rank of second lieutenant in June 1916. Deluc was killed during a reconnaissance mission at Souain September 15, 1916.

3. Menuet - dedicated to Jean Dreyfus

Jean Dreyfus was the stepson of Madame Fernand Dreyfus, with whom Ravel was very close. He wrote some of his most personal letters to her about his wartime experiences. After

대의 오보에의 절규 (오보에의 높은 음은 강도가 세지는 않다.)가 잘 참아오던 감정의 기록을 묘사하는 듯 가슴 아프다.

3곡－미뉴에트(Menuet)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라벨을 치료해주고 돌봐주었던 동료 장 드레뷔스(Jean Dreyfus)를 추모하는 곡으로 귀족적이고 고상했던 인물의 성품을 잘 묘사하기 위한 듯 우아한 미뉴에트로 구성하였다. 앞의 두 곡과는 달리 주제가 서정적이고 선형적(線形的)인데 오보에가 주도하는 첫 부분의 아름다운 음색은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 먹먹한 아련함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중반부는 원곡 피아노 솔로곡에서는 뮤제트(musette) 부분으로 피아노의 소프트 페달을 사용하였는데 이 관현악 편곡에서는 부드럽고 풍성한 베이스 하모닉스와 목관의 코랄로 대체하였다.

4곡－리고동(Rigaudon)

라벨의 죽마고우 피에르와 파스칼 고갱 형제(Pierre and Pascal Gaudin)를 추모하는 곡이다. 두 형제는 전장에서 포탄에 맞아 동시에 생을 마감하였다. 라벨은 그들의 가슴 아픈 죽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살아생전 그들의 활달하던 모습을 기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역동적이면서 또한 전원적인(유년 시절을 연상시킨다) 리고동 춤곡으로 곡을 구성하였다. 중반부의 트리오에서 템포와 리듬이 갑자기 변하는 가운데 울먹이는 듯한 오보에, 플루트, 클라리넷으로 이어지는 선율이 참 애처롭다. 그것도 잠시, 다시 활기찬 첫 부분이 반복되는데 죽음을 비교적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서양인들의 태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Wolfgang Amadeus Mozart

Piano Concerto No. 21 in C Major K. 467 “Elvira Madigan”

모차르트 - 피아노 협주곡 제 21번 다장조, 궤혈번호 467 “엘비라 마디간”

창작의 원숙기(圓熟期)로 접어든 30세의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그는 1782년부터 1785년까지 오스트리아 빈에 머무르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벌였는데 위촉(委囑) 작품 연주 이외에도 본인 스스로의 협주곡 콘서트 시리즈를 열기도 하였다. 연주는 늘 성공적이었으며 이를 통해 많은 걸작이 나왔다. 피아노 협주곡 제 21번 역시 이 때 만들어진 것으로 제 20번 협주곡과 거의 동시에 작곡되었으며 작곡 기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다. 클라리넷이 빠진 2관 편성으로 이 곡의 가장 큰 음악적 특징은 지속적으로 변하면서 다채로운 색채감을 선사해주는 오케스트레이션과 절제된 피아노의 음형의 조화에 있다. 즉 각 프레이징 (대개의 경우 4 또는 8마디 주기)마다 또는 한 프레이징 안에서 조차도 악기의 편성 또는 악기 군 내에서의 구성이 바뀐다. 이는 그의 후기 관현악 작품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지휘자가 현악부만 연주시켰을 경우 모차르트의 음악은 흐름이 끊겨 연주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당대 다른 고전주의 작품의 경우 어느 정도 연주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하이든이 목, 금관 악기를 음악적 색채 및 다이내믹의 보조 역할로 쓴 반면에 모차르트는 온전한 독립체로서 다루었으며 각 악기 그룹 내에서도 각개 악기들을 한 가지 역할 즉 반주나 멜로디에 국한시키지 않고 매 프레이징마다 교체하여 재미있게 만들어낸 것이다. 또한 각각의 악기들 나름 독자적으로 서정적인 노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이러한 연유로 금관 악기 연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고전 작품의 “파트보”로 모차르트의 것을 뽑는다. 즉, 모차르트의 천재성은 작품의 어떤 파트보를 들고 와서 독립적으로 연주하더라도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서정적인 노래가 되게끔 만들었다. 눈을 감고 모차르트의 빠른 악장을 듣고 있노라면 마치 화려한 만화경을 보고 있는 듯 그 다채로움이 아름답기 그지없다.

Ravel’s demobilization and the death of his mother, he recuperated at the Dreyfus family home at Lyons.

4. Rigaudon - dedicated to Pierre & Pascal Gaudin

Pierre and Pascal Gaudin were the brothers of Marie Gaudin and her sister Jane Courteault with whom Ravel maintained close contact throughout his life. They were killed by the same shell on the first day of their arrival at the front, November 12, 1914, at Oulches.

Wolfgang Amadeus Mozart

Piano Concerto No. 21 in C Major K. 467 “Elvira Madigan”

Elvira Madigan, nickname of Piano Concerto No. 21 in C Major, K 467, three-movement concerto for piano and orchestra by Wolfgang Amadeus Mozart, one of the best known of his many piano concertos. It was completed on March 9, 1785. Its wide recognition is in large part due to the Swedish film Elvira Madigan (1967), in which its lyrical second movement was featured and from which it derives its nickname. Mozart completed his Concerto No. 21 only a month after his previous concerto No. 20 in d minor. He would write four more in the next 21 months. Because Mozart wrote them for his own concert performances in Vienna, he did not write down the solo cadenzas that he improvised during performance, and, as a result, modern concert pianists have had to either create their own cadenzas or use those created by others. The opening movement begins quietly with a march figure which gave the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모차르트 음악이 가지는 순수성 때문인지 스웨덴 출신 영화감독 보 비더버그(Bo Gunnar Widerberg, 1930~1997)는 이 협주곡을 그의 1967년 작 “엘비라 마디간 (Elvira Madigan)”에 담는다. 자연광(自然光)과 Blur Filter를 카메라에 씌어 유화(油畵)같은 아름다운 영상과 그 뒤에 흘러나오는 매력적인 모차르트의 협주곡 선율은 영화를 단숨에 세계적으로 히트시켰고 영화의 O.S.T.는 빌보드 (Billboard) Top 10에 오르게 된다. 이 협주곡은 “군대” 협주곡이라는 타이틀로 200년간 불리다가 비더버그 영화의 대성공으로 인해 “엘비라 마디간” 협주곡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1악장－Allegro maestoso



[피아노 협주곡 21번 1악장 제 1주제]

주제는 행진곡풍의 힘찬 발걸음을 묘사하는데 이런 이유로 당대에는 “군대” 협주곡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물론 피아노 솔로는 행진곡 리듬에 국한되지 않고 화려한 젊음을 자유롭게 노래한다. 잠깐 단조의 어두운 주제를 노래하며 어린 시절 가슴 아팠던 어느 한 때를 회상(回想)하지만 이윽고 명랑한 어조로 오케스트라와 아름다운 이중창을 구현해 나간다. 모차르트는 즉흥으로 카덴차를 연주해 버려서 악보가 남아있지 않다. 연주자는 다른 후대 연주자가 쓴 카덴차를 차용하거나 직접 카덴차를 만들어야 한다.

2악장－Andante



[2악장 주제선율과 현악 반주]

슬픈 사랑의 전주곡. 너무도 아름다운 선율에 가슴 벅찬 감정이 제 2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사뿐사뿐 거리는 부드러운 셋잇단 리듬과 잘 어울린다. 이 반주 음형 때문에 12/8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곡은 4/4박자여서 멜로디와 반주가 만들어내는 일그러진 리듬이 더욱 자유로운 느낌의 연주로 만들어준다. 중반부에서 미묘한 사랑의 감정이 때론 아름다움으로 때론 슬픔으로 교차되며 우리를 눈물 짓게 만든다.

3악장－Allegro vivace assai

멋진 론도(Rondo) 주제는 울창한 여름날 숲 속의 새소리를 묘사하는 듯 싱그럽다. 앞서 언급하였던 다채로운 악기군의 등장이 이번엔 대화체로 변모되면서 시골 장마당 아낙네들의 수다와 같이 시끌벅적한 것이 재미있다.



[3악장 론도 주제]

piece a nickname Military until the film released, but quickly moves to a more lyrical melody interspersed with a fanfare in the winds. The music grows abruptly in volume, with the violins taking up the principal melody over the march theme, which is now played by the brass. This uplifting theme transitions to a brief, quieter interlude distinguished by a sighing motif in the brass. The march returns, eventually transitioning to the entrance of the soloist. The soloist plays a brief cadenza before resolving to a trill on the dominant G while the strings play the march in C major. The piano then introduces new material in C major and begins transitioning to the dominant key of G major. Immediately after an orchestral cadence finally announces the arrival of the dominant, the music abruptly shifts to G. A series of rising and falling chromatic scales then transition the music to the true second theme of the piece, an ebullient G major theme. There is a cadenza at the end of the movement, although Mozart’s original has been lost.

The famous Andante is in three parts. The opening section is for orchestra only and features muted strings. The first violins play with a dreamlike melody over an accompaniment consisting of second violins and violas playing repeated-note triplets and the cellos and bass playing pizzicato arpeggios. All of the main melodic material of the movement is contained in this orchestral introduction, in either F major or F minor. The second section introduces the solo piano and starts off in F major. It is not a literal repeat, though, as after the first few phrases, new material is interjected which ventures off into different keys. When familiar material returns, the music is now in the dominant keys of C minor and C major. Then it modulates to G minor, then B-flat major, then F minor, which transitions to the third section of the movement. The third section begins with the dreamlike melody again in different key. The final rondo movement begins with

Dmitri Shostakovich

Piano Concerto No. 1 in c minor, Op. 35

쇼스타코비치 - 피아노 협주곡 제 1번 다단조, 작품번호 35

1933년 스탈린의 숙청 및 공포정치(恐怖政治)가 시작되어 구(舊)소련(U.S.S.R.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USSR) from 1922 to 1991) 국민들 특히 예술가들의 핍박과 예술적 자유가 제약될 즈음 쇼스타코비치(Dmitriyevich Shostakovich, 1906~1975)는 신고전주의 형식의 피아노 협주곡 제 1번을 완성한다. 그는 이 작품을 두고 후기낭만주의 서구유럽음악의 장대하고 화려한 협주곡 양식과 다소 부실한 러시아 기악 현대 음악과의 간격을 메꿔줄 곡이라 평가한다.

“나는 소련의 작곡가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시대는 영웅적 영감에 차있고, 기쁨에 넘쳐있다. 이것이 내가 이 협주곡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이다.”

사실 위 회고(回顧)를 들여다보면 그가 밝히는 표면적인 작곡 목적 너머에 스탈린 정권의 폭력과 그에 저항해보려는 의지가 은유적으로 숨겨진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는 공산화된 조국을 탈출해 자유를 찾아 망명하였던 다수의 당대 러시아 음악가들과는 달리 소련에 남게 되었는데 이후 정부로부터 갖은 핍박과 수모를 당하며 상당 기간 예술가로서 그리고 자유인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당시 소련 예술계는 즈다놉시나(ждановщина, 즈다노프 독트린, 전후 진행된 소련 내 문화계 숙청) 교리라고 불리는 문화 혁명화 정책 아래 있었다. 이는 문화-예술 풍조를 인간 사회주의 혁명화(社會主義 革命化)를 위한 문화적 코드(код)로 등치할 수 있기에 공산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문화를 적극 홍보, 선전해야 하며, 부르주아·자본주의·제국주의·서구 문화를 철저히 파괴해야 한다는 노선이다.

쇼스타코비치는 스탈린 정권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내성적이고 겁이 많던 그의 성격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하였고 작품 속에 숨겨서 표현하였다.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의 문인들의 많은 작품이 연상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는 이러한 소위 “비검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였는데 15년 후 그의 바이올린 협주곡(1948년 작)에서 폭력에 무릎 꿇고 그와 타협하여 비굴해진 자신의 자화상을 표현하게 된다.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과 시적 화자의 심경이 일치한다.

이 곡은 일반적인 3악장 구성에서 벗어나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933년 10월 15일 레닌그라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시즌 개막 연주회에서 초연되었으며, 쇼스타코비치 본인이 피아노를 맡고, 프리츠 슈티드리(Fritz Stiedry, 1883~1968)가 지휘했으며, 알렉산더 슈미트(Alexander Schmidt, 레닌그라드 필하모닉 트럼펫 수석)가 트럼펫 솔로를 연주했다.

기록에 따르면, 쇼스타코비치는 훌륭한 연주를 선보였으며 협주곡은 호평을 받아 10월 17일에 한 차례 더 연주되었다. 곡에는 여러 음악적 인용이 등장하는데 1악장에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3번 “열정”(Appassionata), 마지막 악장에는 베토벤의 피아노를 위한 소품 Rondo alla inghinese quasi un capriccio in G major, Op. 129 “Rage Over a Lost Penny”와 하이든의 D장조 피아노 소나타를 인용하고 있다. 마지막 악장의 피날레 카덴차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의 카덴차 마지막 부분에서와 정확히 같은 트릴로 시작된다. 또한 쇼스타코비치 자신의 햄릿 극 부수 음악(Op. 32a)과 희극 가상 살인 사건(Hypothetically Murdered, Op. 31) 및 피아노를 위한 24개의 전주곡이 인용되었고 오스트리아 민요 “O du lieber Augustin”도 인용되었다. 특히 마지막 악장 중반부에 9마디에 걸쳐 트럼펫 솔로는 영국 민요 “Poor Mary” 선율을 연주하는데 이 어린이를 위한 동요의 가사가 평화롭고 평범했던 국가를 잃어버린 그의 처지를 대변하는 듯 가슴 아프다.

the full orchestra espousing a joyous “jumping” theme. After a short cadenza, the piano joins in and further elaborates. A “call and response” style is apparent, with the piano and orchestra exchanging parts fluidly. The soloist gets scale and arpeggio figurations that enhance the themes, as well as a short cadenza that leads right back to the main theme. The main theme appears one final time, leading to an upward rush of scales that ends on a triumphant note.

Dmitri Shostakovich

Piano Concerto No. 1 in c minor, Op. 35

The Concerto in C minor for Piano, Trumpet, and String Orchestra, Op. 35, was completed by Dmitri Shostakovich (1906~1975) in 1933. The concerto was premiered on 15 October 1933 in the season opening concerts of the Leningrad Philharmonic Orchestra with Shostakovich at the piano, Fritz Stiedry conducting, and Alexander Schmidt playing the trumpet solos. “By all accounts, Shostakovich played brilliantly” and the concerto was well received. The performance was repeated on 17 October. Despite the title, the work might be classified as a double concerto rather than a piano concerto, in which the trumpet and piano command equal prominence. The trumpet parts assume equal importance during the conclusion of the last movement, immediately after the cadenza for piano solo. Years after he wrote the work, Shostakovich recalled that he had initially planned to write a concerto for trumpet and orchestra and then added the piano to make it a double concerto. As he continued writing, it became a piano concerto with a solo trumpet. The concerto comprises either three or four movements, depending on the interpretation:

가엾은 제니가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밝은 여름날에... 왜 우는 거니,
밝은 여름날에?
사랑하는 이를 위해 울고 있어요,
사랑하는 이요, 사랑하는 이요,
밝은 여름날에.
...
떠나기 전에 악수해요,
떠나기 전예요, 떠나기 전예요,
밝은 여름날에

이러한 인용은 사실 정권에 대한 그의 비판적인 시각에 대한 일종의 동의로 보이며 또한 신고전주의 형식이라는 표면적 의도에 걸맞은 것이기도 하다. 이 곡에서는 트럼펫 독주가 중요 구성 요소로 자리하는데 피아노는 부당한 정권에 저항하는 작곡자 자신, 트럼펫은 스탈린 정권, 그리고 오케스트라는 정권에 동조하는 사회 내지는 예술가들을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오페라와 같은 설정에서 피아노 주자는 홀로 목소리를 높이며 그와 대조되는 두 개의 세력과 대립하고 있다.

1악장 – Allegro moderato

자유를 향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다. 힘없고 어린 작곡가 자신을 대변하는 피아노는 화려해보이지만 간소한 2성부로 구성되어 있다.



[1악장 제 1주제(피아노 솔로)]

영동한 틀린 음으로 시작되는 트럼펫은 스탈린 정권 내지는 구체적으로는 예술가들의 자유를 빼앗고 소위 ‘잔소리’를 일삼는 즈다놉시다로 대변된다. 피아노의 어둡고 불안한 주제는 곧 들뜨고 재빠른 몸짓의 리듬으로 발전한다.



[1악장 트럼펫 주제]

2악장 – Lento

두 존재의 대립이 시작된다. 몽환적이고 내성적인 왈츠 간에 불길하고 기분 나쁜 움직임이 현실을 반영한다. 이 곡에는 라벨의 G장조 피아노 협주곡의 두 번째 악장의 몇몇 요소가 인용되어 있다. (라벨의 곡은 이 협주곡보다 몇 년 앞선 1931년에 완성되었다.) 마지막 순간에는, 주제가 약음기 끈 트럼펫을 통해 비아냥 거리는 독백처럼 등장한다. 숨 막히는 마지막 몇 마디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 2악장의 끝을 연상시키며 악장은 끝을 맺는다.

1st Mvt. Allegro moderato

This movement expresses a longing for freedom. The piano, representing the powerless and fragile composer himself, may appear dazzling but is actually constructed with a modest two-voice texture. The trumpet, which enters with a jarring wrong note, symbolizes the Stalinist regime—or more specifically, the figure of Zhdanov, who deprived artists of their freedom and constantly nagged them with so-called ideological “guidance.” The piano’s dark and anxious theme soon evolves into a rhythm of fluttering, swift gestures.

2nd Mvt. Lento

The confrontation between two entities begins. Amid the dreamy and introspective waltz, ominous and unpleasant movements emerge, reflecting harsh realities. Several elements from the second movement of Ravel’s Piano Concerto in G Major are quoted in this piece. (Ravel’s concerto was completed in 1931, several years before this one.) In the final moments, the theme reappears as a sneering monologue in the muted trumpet. The suffocating final bars, reminiscent of the ending of the second movement of Beethoven’s Piano Concerto No. 4, bring the movement to a close.

3rd Mvt. Moderato

Here, the piano begins to fully embody the lonely artist. Amid a recitative-like piano soliloquy, the hidden message is less a powerful oratorical statement and more a fragile tone suggestive of sorrow. Musically, this movement functions as an introduction to the final movement.

4th Mvt. Allegro con brio

A full-scale war breaks out between the two forces. The duet between the trumpet—symbolizing the Stalinist regime—and the composer himself develops into a brilliant and intense debate, which is followed by the piano’s act of resistance. The ceaseless clash, brimming with rage, is portrayed

3악장 – Moderato



[3악장 피아노 레치타티보]

피아노는 고독한 예술가 자신을 본격적으로 대변한다. 마치 레치타티보와 같은 피아노의 독백 가운데 숨겨진 그의 메시지는 강력한 웅변조이기 보다는 슬픔을 예시하는 나약한 어조에 가깝다. 이 악장은 음악적으로 마지막 악장을 위한 도입부 역할을 한다.

4악장 – Allegro con brio

두 세력 간의 본격적인 전쟁이다. 트럼펫으로 대변되는 스탈린 정권과 작곡가 자신의 듀오는 화려하면서 치열한 논쟁으로 이어지다가 피아노의 저항으로 연결된다. 분노에 찬 심 없는 다툼은 화려한 기교의 향연 가운데 묘사되면서 멋지게 결말을 맺는다. 비록 이후 15년간 그들의 폭력에 무릎 꿇게 된 쇼스타코비치는 비굴하고 비참해진 자신의 모습을 개탄하며 바이올린 협주곡에서 슬프게 울부짖게 되지만 젊은 예술가의 신념은 성격이 다소 다르겠지만 이후 연주될 작품에서 독재 정권에 저항하던 히나스테라의 경우와 맥락을 같이하게 된다.

Alberto Ginastera
Variaciones Concertantes, Op. 23

히나스테라 - 교향적 변주곡, 작품번호 23

제 1곡.	주제	Tema
제 2곡.	간주	Interludio
제 3곡.	변주 1	Variacione giocosa (플루트)
제 4곡.	변주 2	Variacione in modo di scherzo (클라리넷)
제 5곡.	변주 3	Variacione drammatica (비올라)
제 6곡.	변주 4	Variacione canonica (오보에와 바순)
제 7곡.	변주 5	Variacione ritmica (트럼펫과 트롬본)
제 8곡.	변주 6	Variacione in modo di moto perpetuo (바이올린)
제 9곡.	변주 7	Variacione pastorale (호른)
제10곡.	간주	Interludio
제11곡.	주제 재현	Ripresa dal tema (콘트라베이스)
제12곡.	변주 8	Variacione finale in modo di rondo

탱고에 집중하였던 피아졸라와는 달리 작곡가 히나스테라(Alberto Evaristo Ginastera, 1916~1983)는 아르헨티나 전통 무곡 전반에 걸친 폭넓은 연구를 하였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 음악원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며 민족주의적 요소와 12음 현대 기법을 적용하여 전위적인 작품을 많이 썼다. 이 곡은 그가 미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 교수로 임용되던 1953년 “the Argentine Friends of Music” 협회로부터 위촉받아 쓴 작품이다. 이 작품을 기점으로 그의 소위 제 2기 작곡기가 시작되는데 민요로부터의 주제를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대신 변주하고 가공하여 내포시키는 방법으로 아르헨티나적인 색채감이 은근히 피어나올 수 있게 노력했다. 히나스테라는 피아졸

through a dazzling display of virtuosity and comes to a striking conclusion. Although Shostakovich would later be forced to submit to their violence for the next fifteen years—lamenting his own degraded and miserable state in his Violin Concerto—his youthful conviction, though different in character, ultimately shares a common thread with Ginastera’s later works, which also stood in resistance to authoritarian regimes.

Alberto Ginastera
Variaciones Concertantes, Op.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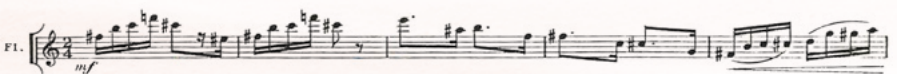
Alberto Ginastera(1916~1983), an Argentinian composer of classical music of 20th century, held a number of teaching posts. Among his notable students were Ástor Piazzolla (who studied with him in 1941), Alcides Lanza, Jorge Antunes, Waldo de los Ríos, Jacqueline Nova and Rafael Aponte-Ledée. He composed Variaciones Concertante, commissioned by “the Argentine Friends of Music”, in 1953. It is scored for two flutes (piccolo), oboe, two clarinets, bassoon; two horns, trumpet, trombone; timpani; harp; and string choir. Variaciones concertantes germinated for five years before Ginastera formally composed it during the second of four creative periods in his life. Variaciones concertantes and Pampeana No. 3 (for small and large orchestras, respectively) typify the second period (1948-1961), which also hatched the First Piano Sonata and the First String Quartet, culminating in Cantata para América

라의 스승이며 그와 더불어 남아메리카를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가였다. 그는 당대 페론정부(Juan Peron, Peronismo 현대 포퓰리즘의 원조, 에비타)의 독재와의 갈등 속에서도 조국에 대한 본인의 철학과 사랑을 굽히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과 형식으로 작품을 썼는데 특히 이 곡, 협주적 변주곡(Variaciones Concertantes)이 명작으로 손꼽힌다. 훗날 페론 정부의 재집권 등 정치적인 이유로 스위스로 망명하면서 작곡 면에서 제 3기로 접어드는데 이 때는 그는 민족주의 색채를 다소 벗어나 소위 20세기 후반 현대 음악의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작곡 경향을 따르게 된다. 이 곡은 25여분 동안 펼쳐지는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솔로악기의 화려함이 재미있는데 고전적 작곡 기법 위에 말람보 리듬(malambo), 유목민의 gaucho(가우초)기타 코드 등의 민속음악요소와 12음렬, 복조, 오스티나토 음형 등과 잘 융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 협주적 변주곡은 기타의 개방현 즉 E-A-D-G-B-E 음형을 주제로 화성과 멜로디를 흥미진진하게 변주해 나간 작품이다. 총 8개의 변주곡과 2개의 테마곡, 그리고 2개의 간주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솔로 악기는 플루트, 클라리넷, 비올라, 오보에와 바순, 트럼펫과 트롬본, 바이올린, 호른, 콘트라베이스의 순서로 등장한다. 주제 동기는 하프에 의해 등장하고 첼로는 변주된 주제 동기를 선율로 아름답게 연주한다.



[제 1곡. 첼로와 하프에 의한 본 주제]

처음 현에 의한 짧은 간주곡(제 2곡)이 지나면서 등장하는 경쾌하고 재미있는 플루트의 변주(제 3곡)는 남미의 유럽이라 불리는 아르헨티나 문화만이 품길 수 있는 이국적으로 채색된 고풍스런 중세 유럽풍의 향이 스며 나온다.



[제 3곡. 익살스러운 플루트 변주 주제]

이어지는 클라리넷 변주는 3음이 단조 화성과 피치카토, 꺾은 음의 효과적인 사용으로 인해 남미 대륙을 넘어 서남아시아와 중국의 음악적 정취를 느끼게 해준다.



[제 4곡. 스케르초 풍의 클라리넷 변주 주제]

비올라는 관현악법에서 바이올린과 첼로의 교두보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첼로가 연주하기에 다소 높거나 바이올린이 연주하기에 너무 낮은 음역대의 음을 효과적으로 소화해내는 매력적인 악기이다. 다소 음울하면서도 절규하는 듯한 긴장감을 가장 잘 표현하는데 히나스테라는 앞선 경쾌한 플루트와 클라리넷 바로 다음에 이 비올라의 변주를 삽입하여 곡 전체의 감정 변화의 균형을 잘 맞추었다.



[제 5곡. 비올라 변주 주제의 도입부와 솔로 카덴차의 중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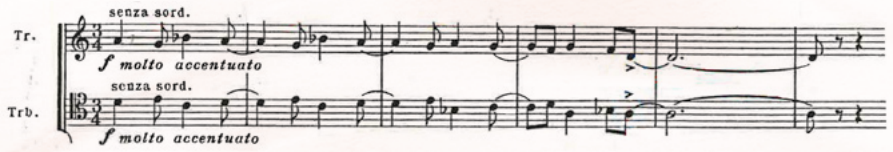
mágica. The variations range in length from mere seconds to several minutes. Each one spotlights one or more solo instruments, displaying in insightful, often virtuoso style their personalities and capabilities. The result is an appealing, witty “concerto for orchestra.” Cello and harp present the slow, expressive Theme. A sombre Interlude for strings follows, then the formal variations unfold as follows: Humorous Variation, for flute; Variation in the Style of a Scherzo, for clarinet; Dramatic Variation, for viola; Canonic Variation, for oboe and bassoon; Rhythmic Variation, for trumpet and trombone; Variation in the Style of a Moto perpetuo, for violin; Pastoral Variation, for horn; Interlude for winds; Reprise of the Theme, this time with double bass partnering the harp. The Final Variation is an exuberant rondo for full orchestra with a distinctly Latin-American flavor.

1. Theme for Cello and Harp (Adagio molto espressivo). While the harp plays variants of the so-called “guitar open strings” (E-A-D-G-B-E), the solo cello sings a contemplative theme verging on sadness. The key of E, major and minor, is established immediately.
2. Interlude for Strings (same tempo)
3. Jocose Variation for Flute (Tempo giusto)
4. Variation in the Style of a Scherzo for Clarinet (Vivace). The key switches to G; the rhythmic underpinning is a malambo, or gauchos’ dance.
5. Dramatic Variation for Viola (Largo). Modal in character
6. Canonic Variation for Oboe & Bassoon (Adagio tranquillo), recalls the opening theme harmonically.
7. Rhythmic Variation for Trumpet and Trombone (Allegro) is another malambo, this one very brief.
8. Perpetual Motion Variation for Violin (same tempo). With an ABA ministructure, this too is brief and rhythmically impelled.
9. Pastoral Variation for Horn

뒤이은 오보에와 바순의 아름다운 캐논 변주와 트럼펫, 트롬본에 금빛 찬란한 팡파르 변주가 서로
담아 있다.



[제 6곡. 오보에와 바순 변주 주제]



[제 7곡. 트럼펫과 트롬본 변주 주제]

제 8곡의 바이올린의 경쾌하고 현란한 변주에 이어 호른의 깊은 감성은 전원(田園)의 평화를 차
분하게 표현한다.



[제 9곡. 전원풍의 호른 변주 주제]

플루트의 간주에 이어 최저음 현 콘트라베이스가 본 주제를 반복한다.



[제 11곡. 콘트라베이스에 의한 주제 재현]

마지막은 힘찬 말람보 리듬(겹박자에서 2박과 3박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 번스타인의 뮤지컬
westside story 중에서 등장하는 춤곡 “America” 역시 이 리듬에 기초한다, 남녀 혼성 듀엣인 탱
고와는 달리 말람보는 솔로 춤곡으로 기타 반주와 함께 커다란 바지와 넓은 브림 모자를 착용하고
많은 걸음걸이를 힘차게 내딛는 남성적인 춤이다.)을 반복한다.



[제 12곡의 말람보 리듬]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의 순수함에서 시작되어 쿠프랭의 무덤과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을 통한 신고전주의의 상쾌함을 경험한 뒤 남미의 불같은 열정에 다다르게 되는 오늘 심포니 송의
프로그램이 참 재미있다. 모차르트의 순수한 예술미와 라벨의 민족주의적 색채가 대조를 이루는
가운데 쇼스타코비치의 저항과 히나스테라의 신념이 한데 어우러진 다채롭고 흥미로운 음악적
경험이 되길 바란다.

글. 박희정 (작곡가, 지휘자)

(Largamente) with a sostenuto
string

10. Interlude for Winds (Moderato) is more assertively bitonal, otherwise archaic in style.
11. Reprise of the Theme for Double Bass (Adagio molto espressivo), harp-accompanied as before, but now markedly melancholic.
12. Variation-Finale in Rondo Style for Full Orchestra (Allegro molto) is a final evocation of the malambo. Whooping flutes and brass, pounding drums, and a string ostinato whip the piece to a rousing conclusion.

함신익과 심포니 송
2025 마스터즈 시리즈 IV
2025. 04. 24

〈봄의 협주곡〉 관객 리뷰

“
오랜만에 클래식 공연을 온전히 즐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휘자분의 해설이 있어서
더욱 이해하기 편했고 첼로 연주자님의
신들린 연주에 함께 몰입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이랑 함께한 시간이
계속 생각날만큼 정말 좋았고
함께 문화생활에 참여하며
추억할 거리가 생겨 기쁩니다.

”

“
이번 기회로 오케스트라 공연도
재밌게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

“
봄에 태어난 초등학교 아들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3대가 함께 봄의 시작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공연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아들과 함께 연주회를 관람하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봄의 따스한 기운과
어우러져 마음이 한층 더 풍요로워졌고,
아이도 음악의 감동을 온몸으로 느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고, 이런 시간이
차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지금까지 들은 클래식 중에
가장 좋았다.

”

“
화려한 첼리스트의 기교로
눈을 떼기 힘들었다.

”

“
쾌적한 공간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함신익 지휘자님의 재밌는 토크가
어우러진 점이 좋았습니다.

”



하나은행과 함께하는 함신익과 심포니 송 마스터즈 시리즈 VI

Samuel Barber
Adagio for Strings

바버
현을 위한 아다지오

Wolfgang Amadeus Mozart
Symphony No. 40, K. 550, g minor

모차르트
교향곡 제40번 사단조, 코헬번호 550

Wolfgang Amadeus Mozart
Requiem, K. 626, d minor

모차르트
레퀴엠 라단조, 코헬번호 626

영웅들을 추모하며

Memory of the Heroes

06. 20 Fri 7:30 PM LOTTE CONCERT HALL

티켓 VIP석 12만원 | R석 10만원 | S석 7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 C석 2만원 문의 심포니 송 02-549-0046

후원 하나은행 NOROO EG 주식회사 이지 PONGSAN TSE FST SEBONG GOLFZON DSK 화광교역(주)



소프라노 이해원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테너 이명현

베이스 정인호

인천시립합창단



신년음악회

Beethoven
Prometheus Overture, op. 43

Dvořák
Cello Concerto, op. 104, b minor
김민지, cello

Beethoven
Symphony No. 5, op. 67, c minor

Mozart Flute Concertos

Elgar
Introduction and Allegro, op. 47

Mozart
Flute Concerto No. 1, K. 313, G Major
조성현, flute

Mozart
Flute Concerto No. 2, K. 314, D Major
조성현, flute

Schubert
Symphony No. 6, 'The Little', C Major



2025 함신익과 심포니 송 MASTERS SERIES

영웅들을 추모하며

Barber
Adagio for Strings

Mozart
Symphony No. 40, K. 550, g minor

Mozart
Requiem, K. 626, d minor

이해원, 김선정, 이명현, 정인호,
인천시립합창단



Beethoven & Bruckner

Beethoven
Piano Concerto No. 3, op. 37, c minor
김규연, piano

Bruckner
Symphony No. 1, c minor

Sibelius Special

Sibelius
Valse triste, op. 44

Sibelius
Violin Concerto, op. 47, d minor
송지원, violin

Sibelius
Symphony No. 5, op. 82, E Flat Major



Welcoming Spring

Cindy Cox
Dreaming a World's Edge (2022)
아시아 초연

Elgar
Cello Concerto, op. 85, e minor
Jiapeng Nie, cello

Schumann
Symphony No. 1 'Spring' op. 38, B Flat Major



Sir Stephen Hough Plays Grieg and Stephen Hough

스티븐 허프가 초연하는
스티븐 허프 피아노협주곡

Sir Stephen Hough
AGATA a Basque Fantasy for Orchestra

Grieg
Piano Concerto, op. 16, a minor

Sir Stephen Hough
Piano Concerto (The World of Yesterday)
한국 초연



Remembrance Ravel and Shostakovich

Mozart
Piano Concerto No. 21, K. 467, C Major

유영욱, piano

Ravel

Le Tombeau de Couperin

Shostakovich

Piano Concerto No. 1, op. 35, c minor

유영욱, piano

Ginastera

Variaciones Concertantes



송년음악회

Beethoven
Symphony No. 9 in d minor, op. 125 'Cho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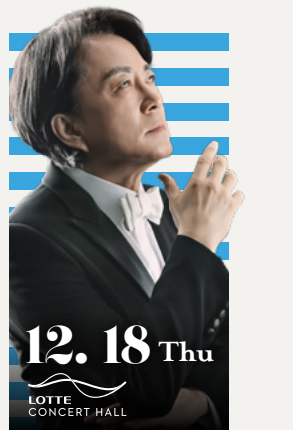
Bach

Christmas Oratorio BWV 248, Part 1

Corelli

Concerto Grosso in g minor, op. 6, No. 8 (Christmas Concerto)

김순영, 김선정, 이명현, 정인호,
인천시립합창단



Upcoming Concerts



06.14

서대문구 초청 - 더 왕

힐스테이트 신촌 - 오후 5시
무료 입장

06.20

2025 마스터즈 시리즈 VI
‘영웅들을 추모하며’

롯데콘서트홀 - 오후 7시 30분



티켓 절찬 판매 중

06.28

서대문구 초청 - 더 왕

DMC 래미안 e편한세상 - 오후 5시
무료 입장



회원권 구매 특별할인

Season Pass
Special Discount

시즌패스
Season Pass

조기구매할인혜택

※ VIP석은 100석 한정

5월 30일까지 구매시	VIP석	5회	—600,000원—>	540,000원
	R석	5회	—500,000원—>	450,000원
	S석	5회	—350,000원—>	315,000원
	A석	5회	—250,000원—>	225,000원
학생 특별 지원 할인 100석 한정 (학생 인증 필수)	A석	5회	—250,000원—>	200,000원
	B석	5회	—150,000원—>	100,000원

티켓 구매 요령

- ① 전화 구매 02-549-0046
- ② e-mail management@symphonysong.com
- ③ 우편 제출 서울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홍은동,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층 심포니송



시즌패스

성명

연락처

E-mail

등급 ☐ R석 ☐ S석 ☐ A석

수령 방식 ☐ 현장수령(추천) ☐ 자택 또는 회사 주소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6-49104 (심포니송)

심포니 S.O.N.G

법인/개인후원 안내



구분	연회비	예우 및 혜택	공통 예우
마에스트로	3억 원 이상	· 기업연주* 6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40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 소식 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 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마스터즈	1억 원 이상	· 기업연주* 2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30매 증정	· 소장용 공연 실황 음원 영상 증정 · 마에스트로 함신의 기업방문 강연 · 마스터즈 시리즈 프로그램 북 전면 광고 · 추가 구매 티켓 10%할인
말러	5,000만 원 이상	· 기업연주* 1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20매 증정	* 기업연주: 심포니 S.O.N.G의 실내악 그룹이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연주
브람스	3,000만 원 이상	· 실내악 연주 2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12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 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브루크너	2,000만 원 이상	· 실내악 연주 1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8매 증정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 추가구매티켓 10%할인 * 하이든은 제외
슈베르트	1,000만 원 이상	· 실내악 연주 1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4매 증정	
베토벤	500만 원 이상	· 2025년 시즌패스 - R석 2매 증정	
쇼팽	300만 원 이상	· 2025년 시즌패스 - S석 2매 증정	
모차르트	100만 원 이상	· 2025년 시즌패스 4회 - A석 2매 증정	
하이든	1만 원 이상		



- 문의

심포니 S.O.N.G 경영지원팀 02)549-0046
-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4-73904 (예금주: 심포니송)
- 후원회

수시 가입 가능
- 후원금액은 월 1만원부터 매월 분할 자동이체 납부가능
- 후원금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 및 법인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 ‘Melodia’ 법인 후원약정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Mobile	
	E-mail	
약정금액	※ 월 기부 금액 / 매월 25일 자동이체	
	☐ 원	
	☐ 500만 원 ☐ 100만 원 ☐ 30만 원 ☐ 10만 원 ☐ 5만 원 ☐ 3만 원 ☐ 1만 원	
일시납	일시납 원	※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자동이체 은행정보	은행명	예금주 명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 안 함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거부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란을 채워주십시오

☐ 개인 또는 ☐ 법인	약정금액
	성명
	연락처

후원계좌 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 신청 방법: 약정서 작성 후 하단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심포니 송 전화번호: 02-549-0046 이메일: management@symphonysong.com ※ 심포니 송 후원자는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후원해 주신 모든 금액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이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작은 시냇물이 흘러 큰 바다를 이루듯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저희에게는 큰 후원이 됩니다.
2025 'Melodia' 개인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Mobile	
	E-mail	
약정금액	※ 월 기부 금액 / 매월 25일 자동이체	
	☐ 원	
	☐ 500만 원 ☐ 100만 원 ☐ 30만 원 ☐ 10만 원 ☐ 5만 원 ☐ 3만 원 ☐ 1만 원	
일시납	일시납	원 ※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자동이체 은행정보	은행명	예금주 명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 안 함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거부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함신익과 심포니 송 정기후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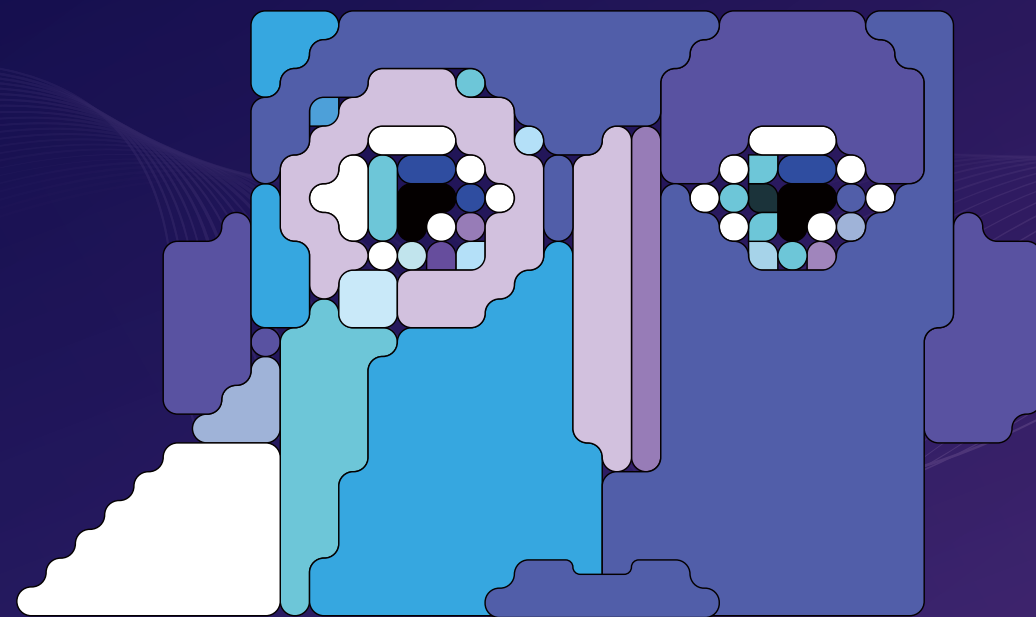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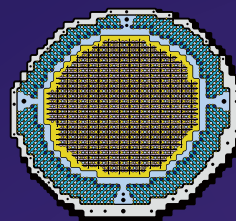
※ 신청 방법: 약정서 작성 후 하단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심포니 송 전화번호: 02-549-0046 이메일: management@symphonysong.com
※ 심포니 송 후원자는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후원해 주신 모든 금액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이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3 unif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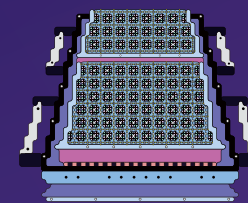
Optimized InterconneXion S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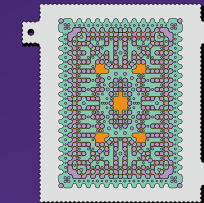
Probe Card



Interface Board



Test Socket



TSE

Enabling Tomorrow's Semiconductor

나의
자신감,
삶에 대한
자신감

성형 MOLDING

피부 SKIN

메디스파 MEDISPA

비만 OBESITY

두피 SCALP

항노화 ANTI-AGING

지방성형 A FATTY MOLDING

성의학클리닉 A SEX CLINIC

세포재생전문클리닉 CELL REGENERATION CLINIC

L
A
H
Y
E
O
N

... FA & BIO분야 ...

글로벌종합 기술기업

이차전지장비, 디스플레이장비, 리니어시스템, 물류자동화 로봇, 산업용 및 의료용 레이저
대한민국 장비산업분야 및 바이오 보툴리눔독소제재 미래에 새로운 기준을 만듭니다.

GLOBAL GOLF PLATFORM COMPANY GOLFZON NEWDIN GROUP

골프존뉴딩그룹은
‘새로움과 즐거움, 유익함의 창출’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글로벌 골프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웃 · 사회와 함께 동행하며
늘 새로운 골프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GOLFZON NEWDIN GROUP



영 유아를 위한 수제작 토퍼 매트리스

3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가
한 땀 한 땀 탄탄한 토퍼를 제작해 드립니다.
(맞춤제작 가능)

영 유아용 KC 인증 및 모든 안전 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새로운 커피 습관 : 언더프레서

언더프레서의 다양한 홈카페 컬렉션 제품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Kurly **coupang** **NAVER** 에서 언더프레서를 검색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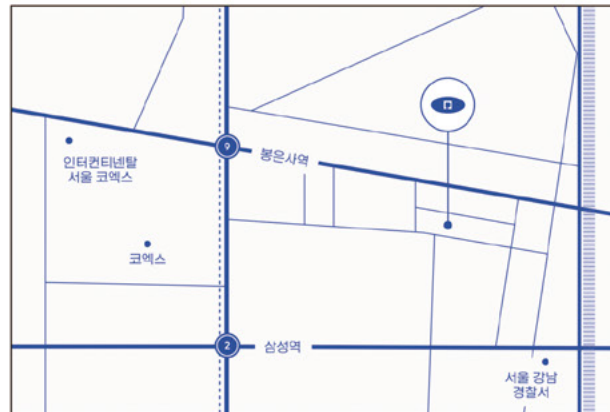


OFFLINE SHOP



<언더프레서 삼성점>

맛있는 커피와 함께하는 특별한 휴식을 경험해보세요.
☎ www.underpressure.co.kr



<찾아오시는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37, 1층(삼성동)
☎ 82 (0)2 2019 8990

UNDER PRESSURE

Wizard7

최적의 사이트 구축·운영·관리를 제공합니다!



풍부한 기능 탑재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각종 OS·DB·브라우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본기능

- | | | | |
|------------|---------|-------------|--------------|
| HTML5(웹표준) | 반응형웹 대응 | WYSIWYG 에디터 | 편집 모드/사용자 모드 |
| 강력한 권한 설정 | 파일관리 | 웹 접근성 | 다국어 지원 |
| 높은 보안 | 메뉴 관리 | 백업/복구 | 워크플로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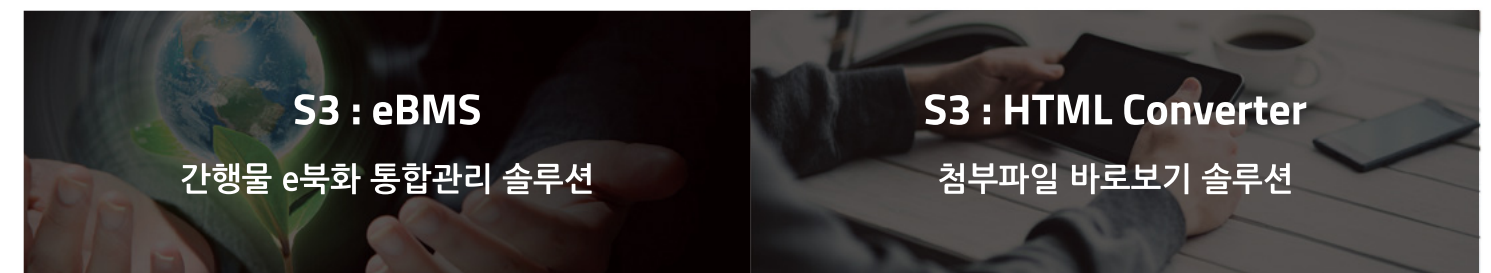
※기본 기능의 일부를 기재

모듈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여 자유자재로 사이트 구축

- | | | | |
|--------|----------|-------|---------|
| 게시판/뉴스 | 이미지 슬라이드 | 인물 소개 | 폼빌더 |
| 일정관리 | 규정관리 | 연혁 관리 | 회원정보 수정 |

※상기 외 모듈의 다양한 기능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홈페이지를 위한 추가 솔루션



케이투웹테크(주)
www.k2web.co.kr

서울 금천구 가마산로 96 1510(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8차)
메일문의 : shlee012@k2web.co.kr / 상담시간 : 09:00 ~ 18:00

02-575-7721